

천연물 자외선 차단제의 개발

박채리, 김근민, 김동욱*
인제대학교
(pedkim@inje.ac.kr*)

지구 환경의 오염증가로 인해 자외선이 대기권에서 차단되는 빈도가 점점 떨어짐으로 피부에 도달하는 자외선의 강도는 점차 증가하고 있다. 자외선 차단제로는 자외선반사제와 자외선 흡수제가 있다. 현재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UVB (290~320nm) 흡수제는 EthylHexylMethoxyCinnamate (EHMC)이며 UVA (320~400nm) 흡수제는 ButylMethoxydiBenzoylMethane (BMBM)이다. 위의 자외선 흡수제는 자외선에 노출시 쉽게 분해되는 특징이 있다. 현재 화장품의 중요한 트렌드는 유기합성 성분을 천연물로 대체하는 것이다.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천연물, 특히 수생식물에서 자외선흡수제를 개발하고자 한다. 개구리밥등 수생식물을 채취하여 건조시키며 흡광도의 측정을 통하여 자외선흡수능을 조사하였다.